

몸도 마음도 숲처럼 푸르러졌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산림생태환경교원반(28기) 연수가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연수 첫날 기대로 설레던 선생님들의 얼굴과 마지막 날 푸듯한 표정으로 웃으시던 기분좋은 미소를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로 돌아가 연수에서 깨달고 느끼며 챙겨온 선물 보따리를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풀어놓으시겠죠. 그럴 아이들의 얼굴에도 선생님들의 그 환한 웃음이 옮겨가겠죠.



교직 생활 30여년 중에 가장 보람있고 맛있는 연수였다. 휴양림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명예산림보호 지도원증을 준다니 더욱 좋다. 더더욱 좋았던 것은 식물을 좋아하는 전국의 선생님들과 광릉숲을 걸었던 것이다. - 김상우 선생님(수락초)

숲은 나와 같다. 숲에 발자국 하나 찍는 것도 미안함을 갖고산에가자. 관심을 가져야알 수 있다. 알아야보인다. - 김성원 선생님(수락초)

새롭게 숲을 만나게 되었다. 무심코 지나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 삶의 노력을 봅니다.

- 김태년 선생님(괴산고)

산림생태환경교원반 연수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과 학교 내에 있는 나무, 풀 등을 조사해야겠다. 학교에 있는 숲의 생태계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숲이 아닐까요.

- 임관석 선생님(유덕초)

매우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산림청, 한그루녹색회 관계자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 김오문 선생님(경복초)

매우 유익했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다.

- 송치성 선생님(송남초)

자연에 대한 경외심, 고마움, 소중함을 깨닫게 한 계기였다. 나무, 풀을 통해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했다. 그리고 목표 방향 재설정. - 우동자 선생님(칠서초)

생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내용이 가슴에 와닿고 좋았습니다.

- 박정숙 선생님(덕산초)



산림생태환경에 대하여 익힐 수 있는 기회였고, 맑은 숲속에서의 체험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 임규태 선생님(상수초)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박기섭 선생님(회인중)

여러 분야의 강사들의 반복적 학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도권, 대전권, 부산권, 광주권 등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숲을 이해할 수 있는 휴양림에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조남숙 선생님(대전여성)

이제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숲의 소중함, 숲의 친구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익히고 마음에 새긴 연수였다. 내가 숲에서 느낀 행복을 우리의 푸른숲선도원 아이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숲은 평생의 배움터이다." 아이들을 숲에 데려가고 싶다!! 행복함과 함께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다!! - 장은영 선생님(한신초)

우리들의 숲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발 더 가까

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 박세훈 선생님

(한신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생명과

숲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경미 선생님(청계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대해 너무 몰랐던 눈 멀고 귀 멀고 마음 감잡했던 맹꽂이. 새롭게 눈뜨고 귀 열고 마음 가득 새로운 생명 담아 갑니다.

- 김연순 선생님(월야초)

서럽게 서럽게 울다간 크낙새는
어머니 울어머니 할머니 혼할머니
나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
무엇이든 용서하되 울엄니 잊지 말자
(혼할머니:일본군 위안부로 캄보디아에서 살다가 신분)
- 노윤지 선생님(파천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을까?’ 여러 선생님들의 식
견과 열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
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뻐뚱하고 푸른숲선
도원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
짐해 본다. - 진호생 선생님(강구초)

학년초 반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처럼 야생화나
나무의 이름을 외우고 이해할 수 있는 햇병아리에서
불사조로 변신하고 싶다. - 이병재 선생님(상수초)

이름답고 신선한 자연환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영원히
사랑합니다. - 최문석 선생님(광주교)

무척 많이 알고 갑니다. 숲의 다른 모습을 보아 기뻐습
니다. - 김옥화 선생님(서천중)

여러 가지 연수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좋은 느낌이었
습니다. 아이들의 과학과 실과 교육에도 무척 도움이
되고 학교의 수목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 박남규 선생님(상계초)

좋은 교육 아주 보람되고 알
찬 연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길가 풀 한 포기, 산
기슭 나무 한 포기를 다른
의미로 볼 것 같습니다. 그



들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올바른 시작으로 참된 의미를 부
여하겠습니다. - 박현규 선생님(영동중)

알게 된만큼 더 보일 것이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 연
수였다. - 황용호 선생님(약사초)

자연 그대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인위적
으로 관리 기보다 자연의 생태에 맡겨두
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안태주 선생님(삼계초)

평소에는 무심코 보았던 생명체들에 대해 좀더 적극적
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 김신호 선생님(유현초)



좋은 환경, 훌륭한 전문가
로부터 들은 강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
여와 숲에 대한 체험은 몸과 마음을 통해 체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 이용상 선생님(을지초)

자연에 대한 체험을 위주로 한 활동이어서 다시 하고
싶은 연수이다. 더 자주 진행되면 좋겠다. - 김혁신 선
생님(신내초)

보고, 느끼고, 배워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안희규 선생님(세명컴퓨터교)

일상의 찌들었던 삶을 벗어나서 숲에 들
어와 숲이 주는 고마움을 만끽하고
세상 찌꺼기를 내어 놓아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느낌이
다. - 김인성 선생님(마산중)

그동안 무심하게 보아 넘겼던 풀과 나무에 대한 이름과 진실을 들으면서 작은 풀 포기 하나에도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내 모습을 통해 이 짧은 4막 5일에 자연을 바라보는 내 시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 남영희 선생님(신암중)

우선 전국에서 참가하신 선생님들이 자연에 관심이 많은분들이어서 그런지 심성이 좋으셔서 4막 5일을 유쾌한 대화로 좋은 인연이 되었고, 연수원과 산음휴양림 대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숲과 함께 숨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 김일수 선생님(경복초)

江山萬古主, 人物百年賓이다. 영원한 주인인 자연환경에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머물다 가야겠다는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백기영 선생님(각화초)

숲에 대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 다짐합니다.

- 노정숙 선생님(조종초)

아름다운 광릉숲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숲에 대하여 공부하다 보니 새로운 것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이영애 선생님(오현초)

산림생태환경교원반 28기 연수에 왔다.

림과의 이별도 마다하지 않고 왔다.

생명이 잉태된 어머니와 같은

대초의 숲의 모습도 만나면서

환상적인 강의와 아름다운 사람들과 인연도 맺었다.

경치 좋은 산음휴양림의 구들장에 삭신을 지지면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되새긴다.

원하면 얻으리라, 간절하-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연

수 만에 아싸아싸아싸아~씨!

- 김은 선생님(만연초)

교육내용이 아주 좋았고 진행과정도 잘 되었다.

- 김현정 선생님(조성중)

나무와 숲을 보는 새로운 눈을 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보람 있는 연수였다. - 김혈기 선생님(서재중)

자연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자연의 주체가 아닌 일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에 대한 무지함을 일깨워 준 산림청, 한그루녹색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경록 선생님(동아공고)



숲은 평생의 배움터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전국의 푸른숲선도원 선생님들 40여 명이 임업연수부에 모였다. 4박 5일간의 ‘산림 생태환경교원반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선생님들께서는 울산, 광주, 함평, 마산 등 먼 거리를 마다않고 푸른숲선도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원래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생태환경교원반 연수는 계속 있어 왔으나 이번 28기는 한그루녹색회가 협력하여 각 학교 푸른숲선도원 교사들로만 이루어지는 첫 연수이기 때문에 특히 뜻깊은 연수가 되었다.

첫째 날은 자기소개와 함께, ‘학교 숲의 조성관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목재 이해’시간에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목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은 오전에 ‘나무와 숲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오후에는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 체험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곤충만들기’에서는 아이들처럼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멋진 곤충목걸이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숲과 건강’ 강의에 이어서 저녁시간에는 한그루녹색회 운영위원인 박홍식 선생님께서 야생화에 대한 많은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셋째 날에는 국립수목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수목식별’, ‘자생식물 보존 관리’, ‘동물의 생태 이해’ 등의 강의와 함께 수목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나무와 풀, 야생동물에 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푸른숲선도원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을 나누는 열기로 강의실이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넷째 날에는 임업연수부에서 산음휴양림으로 장소를 옮겼다. 비록 비가 왔지만 빗속에서 이루어지는 숲 해설은 우리 선생님의 열정으로 오히려 뜨거웠다. 저녁에는 한그루녹색회 이은옥 회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맛있는 간식과 함께 대화의 장이 만들어졌다. 그 동안 연수를 받으며 주고받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회장님께 앞으로의 한그루녹색회의 운영방향과 푸른숲선도원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로서의 의지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날은 ‘숲 가꾸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숲 가꾸기 체험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 후 수료식은 아쉬움과 섭섭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선생님들은 연수의 함께 만남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이 연수를 받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며 푸른숲선도원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이 연수를 주관하시며 끝까지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산림청의 관계자 여러분과 한그루녹색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장은영 선생님(한신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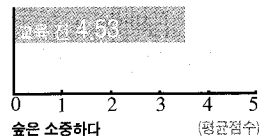
푸른숲선도원 하기수련대회 설문조사 ①

내 생각에 숲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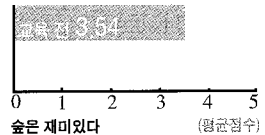
제15회 하기수련대회에 참가한 푸른숲선도원들에게 숲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해서 생각의 변화도 살펴보았습니다. 제시한 14개의 단어는 '홍릉숲교실' 등 숲체험학습에 참가했던 푸른숲선도원들이 쓴 소감문에서 고른 것입니다. 각 항목마다 5개 척도로 나누고 각각에 점수를 매겨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했습니다. 응답자는 총 261명이었고, 여자가 148명(56.7%), 남자 113명(43.3%)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이 172명(6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소중하다					
재미있다					
사랑스럽다					
신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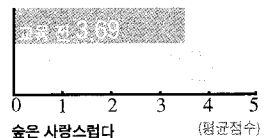
1 숲은 소중한가라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은 푸른숲선도원 하기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도 이미 '숲이 소중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전(4.53점)보다 교육을 받은 후(4.68점)에 '숲이 소중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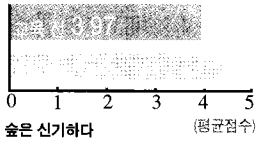


2 숲은 재미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교육 전에 응답자들은 '보통이다(3.54점)' 수준의 인식을 보였으나 교육 후에는 '그렇다(4.18점)' 수준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게 (+0.64점) 나타나 교육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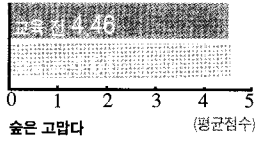


3 숲은 사랑스럽다는 인식은 교육 전 3.69점에서 교육 후 4.17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경우 교육 후에 '숲이 사랑스럽다'는 응답이 비교적 크게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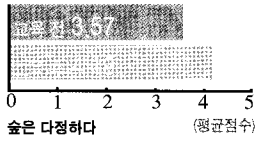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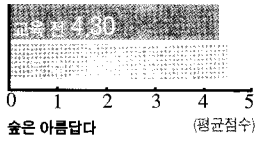
4 숲은 신기하다는 인식은 남학생의 경우 교육을 받기 전 3.93점에서 4.23점으로 상승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4.01점에서 4.47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저학년일수록 숲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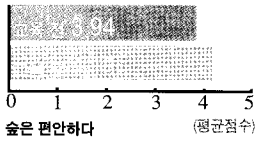
5 숲은 고맙다는 항목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4.46점이 나온 것으로 보아 대체로 응답자들은 교육 전에도 '숲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 학령별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숲은 고맙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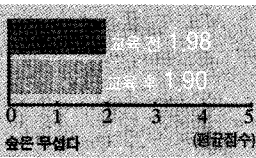
6 숲은 다정하다는 인식은 3.57점에서 4.19점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응답자들은 비교적 숲을 다정하게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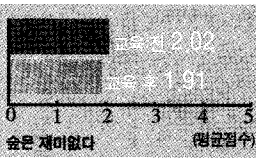
7 숲은 아름답다는 항목은 4.30점에서 4.48점으로 상승해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학생들이 숲을 아름답게 인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남학생의 경우 4.04점, 여학생의 경우 4.55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소에 숲을 더 아름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숲은 편안하다는 인식은 남학생(+0.31점)이 여학생(+0.16점)에 비해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교육 전 3.97점에서 4.54점으로 가장 큰 인식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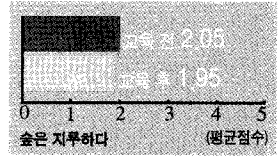


9 숲은 무섭다는 항목에 대해 교육 전 1.98점에서 교육 후 1.90점을 보여 교육을 통해 '숲이 무섭다'는 생각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교육 전(1.57점)보다 교육 후(1.97점)에 숲이 무섭다는 응답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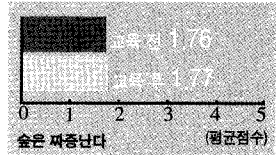


10 숲은 재미없다는 인식은 교육 전(2.02점)에 비해 교육 후(1.91점)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교육 전 1.46점에서 교육 후 1.59점으로 높아져 교육 후에 오히려 숲을 더 재미없게 인식했습니다. 하기수련대회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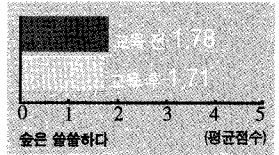
11 숲은 지루하다는 항목은 교육 전 2.05점에서 교육 후 1.95점으로 0.1점 낮아져 숲교육을 통해 숲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숲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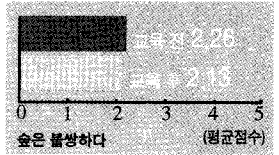
12 숲은 짜증난다는 항목은 다른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들보다 절대적인 수치는 비교적 낮았지만 유일하게 교육 전(1.76점)보다 교육 후(1.77점)의 평균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교육 후에 숲을 더 짜증스럽게 느낀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온종일 걸어다녔기 때문이라는 게 인솔하신 지도교사들의 대답입니다.



13 숲은 쓸쓸하다는 인식은 교육 전 1.78점에서 교육 후 1.71점으로 낮아져 교육 후에 ‘숲은 쓸쓸하다’는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숲은 불쌍하다는 인식은 교육 전 2.26점에서 교육 후 2.13점으로 낮아졌습니다. 남자의 경우 교육을 통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만 2.16점에서 1.91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에 한그루녹색회 홈페이지(www.greencau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조규성(한그루녹색회 정책기획실장)>



나무와 흙의공간이 풍성한 생동한 학교 만들기 - 영국의 학교숲

학교육외환경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영국의 학교숲은 LTL(Learning through Landscapes)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LTL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학교육외환경의 교육적 활용 향상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1990년 영국의 교육과학부, 지방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으며 처음 시작되었으며, 자연 속에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영국의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교육외환경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미고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LTL은 이후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도입되면서 학교육외환경 변화 과정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요소들을 학교에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으로 다음의 3가지 원칙과* 8단계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나무와 함께 자란다

영국 학교의 주변 환경과 현재까지의 녹화정도를 보았을 때 물리적인 녹화 조성보다는 학교육외환경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육외환경을 직접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교재를 부교재

로 채택하여 1주일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LTL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Growing with Trees’ 프로젝트이다. 나무의 교육적, 환경적 가치를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씨를 모아 오게 하여 학교옥외환경에 심어 자라는 것을 연구하게 하기도 하며, 그 결과를 다른 학생들 및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재정은 식육회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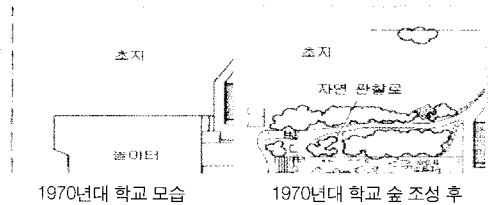
대표적인 영국의 학교 숲 조성 사례인 콤부스 유아학교(Coombes County Infant School)는 학교옥외환경 전체가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영국은 물론 유럽 등지에서 해마다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올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1년 저우드상(Jerwood Awards)을 수상한 이래 1992년, 매년 시행하는 여왕의 상(Queen’s Royal Anniversary Trust Awards)을 수상하는 등 10여 개의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교숲의 특징은 자연 상태 그대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인공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연성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철저하게 의도되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 숲은 다양한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많은 수종은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이다. 이것은 가을철에 아이들이 직접 수확하도록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겨울철 그대로 방치해서 새와 곤충의 먹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숲을 따라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곡선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자연관찰로 중간에는 버드나무로 문을 만들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경사지에는 콘크리트 대신 통나무로 계단을 만들었다. 숲 군데군데 바위, 통나무, 덩굴 등을 쌓아두어 아이들이 이끼 등을 관찰하고 곤충이나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숲 속에 있는 자연 상태의 연못 주변에는 나무로 만든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관찰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못은 야생동물 서식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물 주변에는 키 작은 나무들과 덩굴식물을 심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였다.

(글,사진 / 김인호(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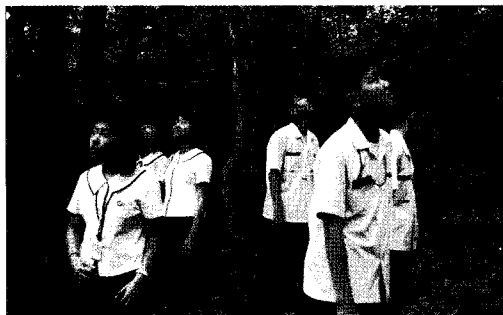


* 3가지 원칙 'Holistic(학교의 모든 자원을 이용)', 'Sustainable(지속적인 전개)', 'Participative(구성원들의 참여)'

* 8단계 과정 1단계는 '개념의 공유(Share the concept)'이고, 2단계는 '운영그룹 조직화(Set up a management structure)'이며, 3단계는 '학교 현황 조사(Survey your site)'이다. 이 3단계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야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Establish your school's need)' 4단계를 시작한다. 그 이후 5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Create a vision), 6단계로 계획안을 수립하여(Identify solutions), 7단계로 실행한다(Implement change), 그리고 조성 이후에 결과에 대해 마지막 8단계로 평가한다(Monitor and evaluate change).

나무에게

광주 경신중학교 구수연 선생님이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푸른숲선도원의 소식지를 보니 뿌듯하고 반갑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학교 자연 학습장에서 학생들과 '내 나무와 대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시와 편지, 사진을 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나무를 사랑하는 고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나무야 안녕

그동안 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에게 해 준 일이 없는 것
같아. 네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말야.
그런데 우리는 너를 자꾸 파괴하고 있어.
우리의 놀이터가 되고, 먹을 것이 되며,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먼저 나와 우리를 품어 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나무야,
너를 아끼며 사랑할게. 그럼 안녕.

-너의 친구가 되고픈 민재로부터-

'화평보호'

모두들 생각하는 쉬운 단어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지 꼬꿍 얼어 있어

참 미안해

바로 어제만 해도 널 지켜 주겠다던,
맑은 하늘 속에 살게 해 주겠다던
너를 향한 돌처럼 굳건했던 내 약속이
어디로 흩어져 버린건지..

그래도 그 약속 꼭 지켜볼 테니
우리를 위해 조금만 더
땀 흘려 주겠니?

고맙다 나무야!

힘들 텐데, 아플 텐데,
꼭 참고 버텨 줬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마워

-성신이가

나무를 사랑하는

가만히 널 보고 있으면

너무 몰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넌 항상 우리에게
많은 공기를 주잖아. 그리고 너의 몸은 항상
우리에게 종이, 가구, 건축용 재료를 주잖아.
너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너에게
주는 건 없는 것 같아. 아파트를 세운다고 너를
버어버리고, 심심하다고 나뭇가지를 찍고... 그런데
도 너는 항상 우리를 위해 너의 삶을 다 살아.
그래서 나도 너 같은 사람이 될까 해. 다른 사람들에게
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널... 이제는 우리가
보살피 주고 바라봐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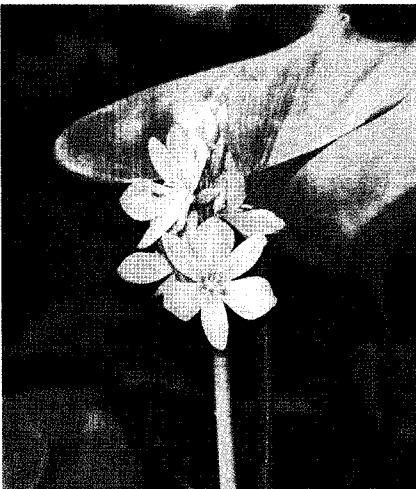
너를 존받고 싶은 일천이개

사랑하는 사람, 나무를 사랑하는

나무들이, 난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지수라고 해. 길거리마다 너희들을 볼
수 있지. 그만큼 너희들이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뜻이잖아. 너희들이 있어 공기가 청량도어 나와 같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봄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무성하며, 가을에는 화려하고, 겨울에는
쓸쓸하기까지 한 계절마다 바꾸는 너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틀었어. 토목 공사로 인해 잘리는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들이 어피하면
할수록 지구가 파괴되는 것인데 말야. 앞으로
너희들의 소중한을 알고 너희들을 보호하며
함께 생활하는 내가 되게.

나무를 사랑하는 지수가

♣ 박홍식 선생님의 들꽃 이야기(3) ♣ 물옥잠



자연을 사랑하는 물옥잠의 고집

요즘 도심 근교 자연학습원의 물가에 가면 많이 피어
있는 꽃이 있지요. 파란색으로 군락을 이루어 피는 물
옥잠입니다. 물옥잠이 고운 꽃을 피우는 것은 곤충을
이용해서 꽃가루받이를 하는 충매화이기 때문입니다.

수생식물의 문제는 아무리 꽃을 예쁘게 피워도 물
가에는 중매쟁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옥
잠이 선택한 것은 최악의 경우 근천교배라도 해서 후
손을 남기는 것이지요. 꽃을 잘 보세요. 꽃에는 보통의
암술도 있지만,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이를 못할 경우
꽃이 질 때 스스로 꽃가루받이를 할 수 있도록 예비암
술이 따로 있습니다. 자연은 참 신기합니다.

〈박홍식 선생님은 한그루복색회 운영위원입니다.〉

다시 보는 제14회 푸른숲선도원 그림.글짓기대회 대상(농림부장관상) 수상작

그림부문 초등부

숲이 우거진 풍경



안예린(백문초등학교)

글짓기부문 중고등부

자연, 그림을 그리다

서동주(제천여고)

고이 접어든 손을 조심스레 피어낸다
수염 긴 노년의 화가아저씨
붓 끝을 움직일 때마다
고귀한 생명을 잉태한다

손끝까지 그윽히 스며드는 소소리 바람에
제 몸을 맞긴 지 어느덧 십여 년,
흑백사진 위에 연둣빛 물결
차분히 그려내고 있다

보울록하게 숨을 헐떡이는
청개구리의 힘찬 발돋움까지도
놓치지 않은 채
가지마다 얇게 펼쳐오는
아이들의 싱그린 햇살을
부드러운 손놀림에 실어낸다

풀잎 끝자락,
영롱하게 맺힌 매미 울음소리
세상을 포용하는 따스한 온기 되어
스스럼없이 전해주는 넉넉한 사랑
각 태어난 아기에게
희망의 샘물 한 모금 선사한다

10월 어느 눈 내리는 날 아침
온가족 마음에 노을을 얹으며
바스락 바스락거리는 포근한
숨이불은 엄마의 자궁
사랑거리는 나뭇잎의 도사임마저도
고요한 리듬을 타고
난, 순간
숲 속 공주가 되어버린다

간이역처럼 잠시 쉬어가는
내 아늑한 침실이여-
평생 살아가고 싶은
꽃길 위에 다다르면
함께 숨쉬며 느끼며
깨어나지 못할 꿈속으로
조금은 깊게 조금은 천천히
여린 나무 겉으로 빠져든다

행사 안내

제15회 전국 푸른숲선도원

그림·글짓기대회 개최



(사)한그루녹색회는 제15회 전국 푸른숲선도원 그림·글짓기 대회를 오는 10월 21일(금) 홍릉수목원에서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직접 행사장에 참석하여 숲씨를 거르는 백일장과 우편접수를 하는 공모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백일장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10월 18일(화)까지 한그루녹색회 이메일(greencause@hanmail.net)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행사 당일 오전 8시 50분까지 행사 장소로 집결하면 됩니다.

우편공모전은 학교 단위로 작품을 접수합니다. 10월 21일까지 작품명, 학교, 학년, 이름을 기재하여 (사)한그루녹색회로 작품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 대회의 대상 4명에게 농림부장관상, 최우수상 8명에게 산림청장상, 우수상 16명에게 한그루녹색회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품은 작품집을 발간하여 전국 학교 등에 배포합니다.

또한 그림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작품은 'UNEP 세계어린이환경그림대회'에 출품됩니다. 전국의 푸른숲선도원들이 숲의 소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숲사랑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이번 대회는 (사)한그루녹색회에서 주관하고, 산림청, 유한킴벌리, 녹색자금이 후원합니다.

지난 행사 소식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대상

산림생태교원반 연수 실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산림생태교원반 연수가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만에 걸쳐 입업연수부와 광릉수목원, 산음휴양림 등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기존의 산림생태교원반 교육과정 이외에 한그루녹색회 운영위원장 최준석 전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의 푸른숲선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 및 토의, 박홍식 선생님의 야생화 슬라이드 강의, 한그루녹색회 이은옥 회장과와의 만남 등 한그루녹색회에서 마련한 교육내용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가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42명에게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과 함께 34시간 직무연수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설문참가 지도교사에게

<한국의 대표숲 33> 증정

(사)한그루녹색회는 지난 7월에 실시한 푸른숲선도원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290명께 경향신문사에서 발간한 <한국의 대표숲 33> 1권씩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회원 가입 안내

대상

- 푸른숲선도원을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
- 숲을 가꾸고 자연을 보존하는 녹색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

특전

- 참가자에게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 푸른숲선도원 소식지 무료 송부
- <대한민국 대표숲 33>(경향신문사 간) 무료 송부(신청순 100명)
- 숲가꾸기에 관한 정보제공 및 무료교육

회비

일반회원 - 연회비 30,000원 이상
단체회원 - 연회비 100,000원 이상
기업회원 - 연회비 500,000원 이상
- 예금주는 사단법인 한그루녹색회입니다.

농협 : 031-01-424721

국민은행 : 048-01-0298-552

우리은행 : 751-408386-01-001

문의처

(사)한그루녹색회

주소 : (130-712)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리 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 내)

전화 : 02-961-2737, 02-968-0868

FAX : 02-961-2738

e-mail : greencause@hanmail.net

홈페이지 : www.greencause.or.kr

운영진

- ◆ 회장 : 이은옥
- ◆ 임원 : 김명전, 강신무, 강재만, 고용삼, 김부영, 김유천, 손영훈, 안순철, 윤해진, 이래근, 이상필, 이은옥, 조병갑, 최영길
- ◆ 운영위원 : 김명숙, 남원희, 박홍식, 오대현, 이미경, 최준석, 최찬순
- ◆ 사무국 : 이종민, 조규성